대우조선 망갈리아조선소 매각 다시 급물살탔다

루마니아 정부 최근 매각 작업 승인

지난 3월 지분 51% 인수조건 합의

매각 절차 승인 안돼 6개월간 안갯속

이번 승인으로 최종 매각절차 밟을 듯

대우조선 "루마니아 국무회의 승인 후속절차 남아 시간 더 소요될 것"

루마니아 정부가 최근 매각작업을 승인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인 대우조선해양의 루마니아 망갈리아조선소 매각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루마니아 망갈리아조선소.

장기화 조짐을 보인 대우조선해양의 루마니아 망갈리아조선소(대우·망갈리아중공업) 매각이 다시 급물살을 탔다.

매각 승인을 미뤄온 루마니아 정부가 최근 매각 작업을 승인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망갈리아조선소의 2대 주주인 루마니아 정부가 망갈리아 조선소 매각 작업을 승인하면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그동안 인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네덜란드 다멘(Damen)그룹과 루마니아 정부가 이견을 좁히고 매각 조건에 합의했지만 루마니아 정부가 최종 승인하지 않아 절차가 미뤄졌다.

당초 대우조선은 지난 3월 다멘, 루마니아 정부와 함께 대우조선이 보유한 망갈리아조선소 지분 51% 인수 조건에 합의했다.

다멘이 먼저 대우조선이 보유한 망갈리아조선소 지분 51%를 인수한 뒤, 이 가운데 2%를 루마니아 정부에 넘겨 루마니아 정부의 지분을 기존 49%에서 51%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경영권은 다멘그룹이 갖되 루마니아 정부를 망갈리아조선소의 최대 주주로 올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루마니아 정부가 매각 절차를 승인하지 않아 지난 6개월 간 매각은 안개 속을 걸어왔다.

루마니아 정부의 이번 매각 승인으로 망갈리아 조선소는 곧 최종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매각 조건은 기존 합의 내용과 같다.

다만 루마니아 정부는 숙련된 근로자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각 작업이 장기화하는 동안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불만을 표시하며 매각을 촉구한 바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루마니아 국무회의 승인은 났지만 아직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종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망갈리아조선소는 지난 1997년 대우조선의 전신인 대우중공업이 루마니아 정부와 51대 49 비율로 합작사를 설립하며 탄생했다. 당시 대우조선의 투자금액은 5300만달러였다.

인수 4년 만에 루마니아 10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수주 부진 등으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대우조선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켰던 주범 중 하나로 꼽혔다.

길소연 기자 ksy@

印 항만 "기아차 공장 우리지역으로"

수출입 환적수요 확대 경쟁력 제고

기아차가 2018 인도 델리 모터쇼에서 공개한 현지전략형 SUV 'SP' 콘셉트카.

기아자동차가 현지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도 항만들의 구애가 이어지고 있다.

기아차를 고객사로 확보하면 자동차 물동량 증가에 따른 수출입 환적 수요 확대로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첸나이 트러스트 항만을 포함해 카마라자르 항만, 카투팔리 항만, 크리시나파트남 항만 등 4곳이 기아차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 항만들은 모두 기아차 공장이 들어서는 안드라프라데시 주 아난타푸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인도 경제신문 힌두비즈니스라인은 "이용료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기아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첸나이 트러스트 항만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도했다.

첸나이 트러스트 항만이 같은 그룹사인 현대차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게 그 근거다. 실제로 현대차 인도법인은 최근 첸나이 트러스트 항구와 계약을 연장했다.

기아차는 총 11억달러(약 1조2400억원)를 투자해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아난타푸르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216만㎡ 용지에 들어설 공장은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지 전략형 차량을 연 30만대씩 생산할 예정이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

삼일제약 "글로벌 안과시장 잡아라"

베트남에 공장설립 등 시장공략

삼일제약이 베트남에 안 질환 제품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안과 제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4000만달러(약 400억원)를 투자해 베트남에 안 질환 제품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삼일제약은 작년 67억5000만원을 출자해 100% 자회사로 삼일제약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다.

점안액(단일 용량 및 다중 용량)을 개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7500㎡ 규모로 건설해 2021년 말까지 공식 허가를 마친 뒤 가동할 예정이다.

삼일제약은 국내 안산공장과 베트남 공장을 기반으로 5년 안에 글로벌 안과 제품 위수탁생산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삼일제약은 2000년 초반 안과용 부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경험을 토대로 베트남 안과시장에 진출, 관련 의약품 수출 및 생산시설 투자 등 해외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1947년 설립된 삼일제약은 전문의약품 제조회사. 병·의원용 치료제 및 일반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어린이 부루펜시럽(해열진통소염제), 아이투오미니(일회용 점안제), 티어실원스(무좀치료제) 등이 대표 제품이다.

장성윤 기자 jsy33@

베트남 철강기업 투자검토 KB증권, 현지 실사 마무리

KB증권이 베트남 철강업체 호아팟 그룹(Hoa Phat Group)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최근 호아팟의 현지 공장을 방문하고 투자를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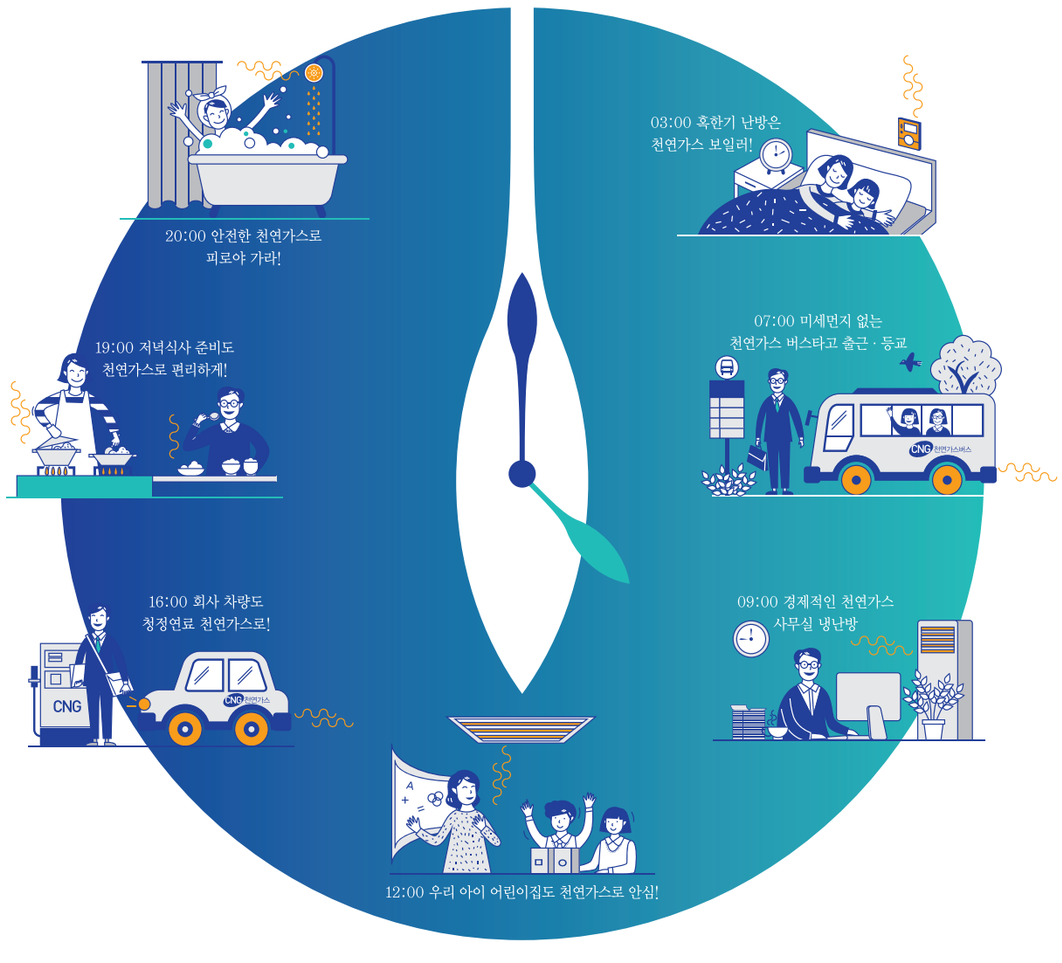
KB증권 측은 현재 호아팟이 진행 중인 '쭝꾸엇(Dung Quat)' 프로젝트 성과 등을 고려했다. 호아팟은 쭝꾸엇 일관제철소(Dung Quat Steel Complex)를 설립해 내년부터 건설용 철강제품과 열연강판을 연간 각 200만t씩 생산할 예정이다. 또 제철소 항구 건설로 15만t 이상의 선박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호아팟 측은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비용 절감과 더불어 수출 제품뿐 아니라 원료 수입도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아팟 그룹(Hoa Phat Group, HPG VN)은 고품질의 강관, 철강 파이프, 선재 등 철강제품을 주로 생산하며 18개 자회사를 통해 가전, 부동산, 농축산 사업도 하고 있다.

철강제품 생산능력은 작년 기준 300만t으로 현지 건설용 철강제품 시장점유율 24%를 차지했다.

올해 생산능력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340만t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24시간, 천연가스와 함께라면!

깨끗하고, 안전한 천연가스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만들어갑니다.

무공해 에너지
연소 시 공해물질이 거의 없는 무공해 청정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공기보다 가볍고 발화온도가 높아 폭발 위험이 적은 에너지

경제적 에너지
열효율이 높아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편리한 에너지
배관으로 공급 가능하고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